

출범 5개월째... '세대교체 물꼬' 튼 KTTL

〈한국프로탁구리그〉

이달까지 27개팀 정규시즌 222경기
김나영 등 영건들 등장 원동력 역할
"다양한 전략과 유망주 기용 늘어"
주세혁 男대표팀 감독도 긍정 평가

한국탁구가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의미 있는 세대교체를 일군 원동력으로 한국프로탁구리그(KTTL)의 출범이 주목되고 있다.

탁구계는 김나영(17·포스코에너지), 조대성(20·삼성생명) 등 향후 10년 넘게 한국탁구를 책임질 영건들의 등장을 반기고 있다. 원년인 올 시즌 많은 경기수와 4단식·1복식 형태의 경기 운영을 통해 KTTL이 유망주들의 실전 경험 축적과 잠재력 실현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KTTL은 1월 28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5월 말까지 총 27개 팀이 정규시즌 222경기를 치르는 구조로 기획됐다. 과거 대다수 대회가 토너먼트 형태로 치러지다보니 구단들은 유망주 육성보다는 당장의 승리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다. KTTL 출범 후 실적이 크게 늘면서 유망주 기용 횟수도 증가해 성장이 수월해졌다는 분석이다.

주세혁 남자탁구대표팀 감독(42)은 "과거 중국, 일본, 독일 등 프로리그를 갖춘 국가들 모두 리그 출범 후 유망주들의 기량 향상이 두드러졌다. 주기적인 경기 개최로 서로 전력분석을 철저히 하



게 돼 장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과정이 이전보다 세밀해졌다"며 "토너먼트와 달리 경기일정과 상대가 정해져 있어 다양한 전략 구사와 선수 기용, 유망주의 짝꿍 등장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미디어와 관객의 주목을 받으며 경기할 기회가 늘어나 선수들의 집중력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KTTL은 출범을 전후로 실업탁구의 리그화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려를 샀고, 개막 1개월 시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중단 사태도 겪었다. 그러나 수원 광고 소재 '스튜디오 T'에 세계 최초 AI 무인중계 도입 등 미디어 친화형 경기장을 구축하고, 코리아-내셔널의 2개 리그 운영으로 불거리 제공과 효율적 일정 소화를 더해 원년 시즌을 큰 무리 없이 진행했다.

일각에선 KTTL이 향후 더 많은 유망주들에게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는 희망찬 예측도 나오고 있다. 원년 시즌에 이미 수많은 새 얼굴들을 발굴한 KTTL에 탁구계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권재민 기자 jmart220@donga.com

한국탁구는 최근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해 세대교체에 성공했다. 유망주들의 잠재력 폭발에는 한국프로탁구리그의 출범이 큰 몫을 했다는 평가다.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베테랑들을 꺾고 항저우아시안게임 출전권을 거머쥔 '무서운 10대' 김나영. 사진제공 | 한국프로탁구리그



16번홀 칩인 이글! 박인비 공동3위

LPGA 신설대회 팔로스 버디스 챔피언십 3R
고진영 2타 잃고 공동12위...이들연속 고진

박인비(34)는 1타를 줄이며 공동 3위로 뛰어 올랐지만, 고진영(27)은 2타를 잃고 공동 12위로 밀렸다.

박인비는 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팔로스 버디스 에스테이트의 팔로스 버디스 골프클럽(파71)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신설대회 팔로스 버디스 챔피언십(총상금 150만 달러·18억9000만 원) 3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3개, 보기 4개로 1타를 줄였다. 합계 5언더파 208타를 기록하며 1위 한나 그린(호주·8언더파), 2위 리디아 고(뉴질랜드·7언더파)에 이어 이민지(호주) 등 8명과 함께 공동 3위 그룹을 형성했다.

선두에 5타 뒤진 공동 9위로 3라운드를 맞은 박인비는 전반에 1타를 줄인 뒤 16번(파5) 홀에선 칩인 이글에 성공하며 단숨에 2타를 줄였다. 17번(파3) 홀과 18번(파4) 홀에서 잇달아 보기를 적어낸 게 다소 아쉬웠다.

박인비는 "16번 칩인 이글이 3라운드 중에서 가장 좋았던 장면"이라며 "4라운드에서는 실수를 줄여나가면서 타수를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곳에서는 버디를 잡는 플레이가 필요할 것 같다. 영리하게 경기 운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주 디오 임플란트 LA 오픈에서 퀴드러플 보기(한 홀에서 4타를 잃는 것)를 범하며 공동 21위에 그쳤던 고진영은 1라운드에서 7언더파를 몰아쳐 단독 2위에 올라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듯 보였다. 하지만 이들 연속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2라운드에서 1타를 잃어 공동 2위에 자리했던 그는 3라운드에서도 버디 1개, 보기 3개로 2타를 잃고 합계 4언더파 공동 12위에 위치했다. 선두 그린과는 4타 차로 역전 우승 가능성은 남겨졌지만, 세계랭킹 1위에 대한 기대치를 고려하면 이들 연속 아쉬운 성적표였다.

루키 최혜진(23)은 3라운드에서 버디 3개, 보기 1개로 2타를 줄이고 고진영과 함께 공동 12위 그룹에 이름을 올렸다. 강혜지(32)가 합계 2언더파 공동 30위, 박희영(35)과 최은정(32), 홍예은(20)은 나란히 1오버파 공동 46위에 자리했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편집 | 최재경 기자 hk7048@donga.com

(주)허리우드, GIC와 마인드스포츠 '홀덤프로리그 창설' 손 잡아

하반기 출범 계획...50억 예산 지원
김석주부부장 "건설 스포츠로 연결"

당구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주)허리우드와 GIC(게임산업협동조합)가 홀덤프로리그 운영 단계 설립을 위한 협약식을 맺고 마인드스포츠 육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허리우드 스포츠사업부 김석주 부부장과 GIC를 사실상 이끌고 있는 KMGM 이석영 대표와 마인드스포츠 홀덤프로리그 창설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 허리우드



(주)허리우드 스포츠사업부 김석주 부부장(오른쪽)이 GIC(게임산업협동조합)를 이끌고 있는 KMGM 이석영 대표와 마인드스포츠 홀덤프로리그 창설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 허리우드

으로 2028년 LA올림픽 시범종목 채택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과거

PC게임이 e스포츠로 스포츠화되고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듯, 국내에서도 홀덤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스포츠화와 대중화에 대해서도 힘이 실리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도 게임 형태로 즐길 수 있는 홀덤게임이 많이 생겨나 건전한 홀덤 문화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긍정적 변화의 흐름 속에 허리우드 스포츠사업부는 건전한 홀덤 환경 조성을 위해 GIC와 프로홀덤협회(PHA) 설립을 공동 추진키로 뜻을 모은 것이다. 앞으로 PHA는 건전한 홀덤 문화를 모니터링하고 체계적인 대회운영을 통해 선수 및 심판(딜러)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런 기반을 통해 홀덤프로리그를 하반기

기 일정에 맞춰 출범 시키고 협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허리우드는 5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허리우드는 한국 대표 당구용품 제조업체 중 하나로 지난해에는 당구 산업 최초로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사업인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석주 부부장은 1일 "프로당구의 성공 모델을 적용해 전 세계적으로 마인드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는 홀덤을 건전한 스포츠 문화로 연결하고 대중화시킬 것"이라며 "이를 위해 홀덤 시장 진출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홀덤프로리그는 주관방송사를 선정하고 향후 8개의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미 다수의 기업들이 후원사 참여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20-03815호(2020.12.24) (COM-2020-08-32243)

“암보험 하나 있는데 뇌출혈도 걱정되고”
뇌출혈 10명 중 8명은 50대 이상
2018건강보험통계연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9)

“암치료비는 나오지만 생활비가 부족하고”
암 진단 후 실직 또는 휴직 46.8%
2013 국립암센터(국가암예방지원사업) 암속도 조사결과

“시망원인 2위 질병은 대비조치안했고”
대한민국 사망원인 2위 심장질환
2017 사망원인통계, 통계청(2018)

내 보험! 보장빈틈 걱정없이!

꼭 필요한 보장이 없어서는 곤란하지요? 걱정 마세요. 큰 병의 진단비도, 특약으로 생활비까지도 걱정없이! 원하는 보장만 골라 보험 빈틈을 꼭꼭 채워드립니다.

가입고객 전원, <AIA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 상세 내용 별도 안내장 참고

무배당 백세시대 (갱신형) 꼭 하나 건강보험

노출형 진단비

금성심근경색 진단비

임상생활비 (특약)

간편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

암에 걸린 적이 있어도 (최근 5년 이내 제외)

나이가 많아도 (40 ~ 75세)

자병이 있어도

수술 병력이 있어도

건강보험 꼭 하나 들어야 한다면 전화주세요

080-860-6700

HEALTHIER, LONGER, BETTER LIVES

• 가입 후 첫날부터 보장(가입 2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 진단금은 최초 1회만) 단, 암 특약은 가입 후 91일부터(소액임은 첫날부터) • 10년 만기 갱신형으로 최대 100%까지 보장(갱신 시 보험료 인상 될 수 있음) • 만기 원금이나 없는 순수보장형입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연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일반보험 가입이 어려운 유병력자 및 고연령자 대상 상품입니다. 의사의 건강진단이나 알부개약 심사를 받을 경우 더 저렴한 일반보험 가입 가능함. • 당사의 인수 기준에 따라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전문 상담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 상품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AIA생명보험 주식회사

이츠 2in1 와이드그릴 상담원서, 무료증정!

- 접수 후 7일 이내, 최소 5000 이상 상담 시(개인정보 제외)
- 배송은 상담원료 후 약 6주 소요(1번 한정)
- 행사 기간 동안 접수한 고객에게만 증정 가능
- *본 상품은 소비자 기증 행위를 포함하지 않음
- *다른 경쟁으로 대체 발송될 수 있음